



물러마티니, 브루노 물러 그룹총괄 대표 내한 기자간담회 개최 유연성 · 응용의 다양화 · 고품질로 고객 만족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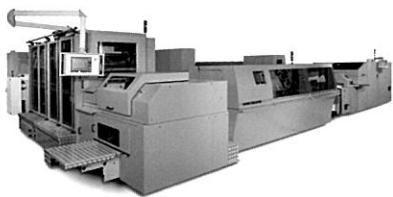
물러마티니코리아(주)(대표이사 허재영)는 지난해 12월 6일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브루노 물러 그룹총괄 대표 내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브루노 물러 그룹총괄 대표는 유연성과 작업 응용의 다양화, 고품질 등을 통해 고객 만족 극대화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드루파2012에서 선보인 3가지 솔루션을 설명하는 한편, 2012년과 2013년을 관통하는 세계 인쇄산업 분석과 전망을 제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이날 간담회에서 브루노 회그룹총괄 대표는 “물러마티니는 신문, 잡지, 카탈로그, 책자, 디지털 포토북, 운전방식 패키징 인쇄 등 인쇄산업 각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후 “인쇄업계에서 지난 4년은 매우 좋지 않았다. 드루파2008에서는 모든 것이 좋았고 물러마티니의 실적도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몇 달 후 발생한 금융위기가 인쇄산업에 큰 고통과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이러한 위기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고객사를 비롯한 인쇄산업 전체에 있어 생존의 문

제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인쇄의 모든 영역이 스마트미디어로 대체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과 같은 인쇄산업의 영광도 되찾긴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대량인쇄 트렌드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소량 다품종 작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계 공급자로서 새로운 도전과제이자 매우 좋은 트렌드라고 보고 있다. 물러마티니는 유연성, 응용 다양화, 고품질을 기반으로 고품질이면서도 단납기를 원하는 고객의 개별적인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패키징 분야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 VSOP 패키징 인쇄기를 인수하고 물러마티니의 최신 기술과 통합함으로써 이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VSOP는 하나의 기계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스템을 고객과 작업자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구성하는 전략적 방법이다. MBO 등을 비롯한 관련 솔루션 업체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통해 필요 부분을 보강하고, VSOP 인쇄기는 하이브리드 인쇄방식을 결합함으로써 특수인쇄, 플렉소, 그라비아 혹은 다이커팅 등의 후가공 공정을 추가함으로써 응용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아울러 물러마티니는 향후 대표적인 패키징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편, 고객의 선별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투자방법과 솔루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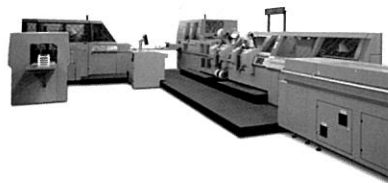
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시그마라인

PDF 보내면 3분 안에 작업 준비

물러마티니의 시그마라인은 POD 대응 시스템으로 디지털 운전 시스템에서 각 권마다 다른 응용의 후가공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가지 포맷 전환이 유닛당 1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쉽고 빠르며, 대량 작업은 물론이고 소량

다품종 작업에도 훌륭히 적용할 수 있다. 데이터에서 디지털 운전 시스템을 통한 인쇄, 접지, 정합을 거쳐 완제품 생산을 인라인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PDF를 보내면 3분 안에 작업준비를 마칠 수 있고, 기존에 작업한 이력이 있다면 그것을 불러내 즉시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다이아몬드 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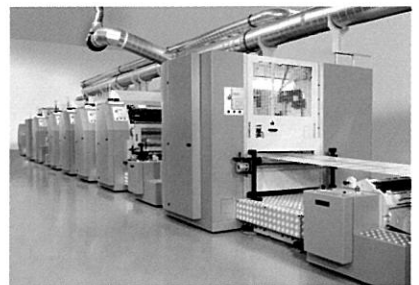
같은 속도로 포토북 양장 작업

양장 제책 시스템인 다이아몬드 MC라인은 기존의 양장 작업은 물론이고, 같은 속도로 포토북 작업도 처리할 수 있는 다목적 시스템이다. 포토북 작업은 앞뒤의 책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만큼 빠른 작업 전환과 개별 응용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완벽히 부응할 수 있는 빠른 작업 전환과 개별화, 소량 다품종 등의 시대적 트렌드에 완벽히 부합한다. 모션 콘트롤 기술이 적용돼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포맷 전환을 할 수 있다. 대량생산은 기본이고, 다품종 소량을 위한 잦은 포맷 전환도 용이하다.

VSOP

오프셋방식으로 친환경빠른 작업 전환

VSOP 인쇄기는 연포장을 비롯한 패키



징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으며, 오프셋 작업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그라비아나 플렉소보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매우 빠른 작업 전환이 가능하다. 종이, 필름, 판지에 수많은 기술과 기능적인 혁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친환경적인 방식이면서도 다품종 소량에 적합한 여러 가지 포맷 전환이 매우 용이하다. 건조방식은 UV와 EV를 채용했다. 슬리브 교환으로 쉽게 작업을 전환할 수 있는데, 유닛당 1분이면 족하다. 기존의 로터리 그라비아 방식은 동판을 외주로 쥘야 했고, 수정할 경우에는 다시 동판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는데, 이 시스템은 CTP에서 판을 출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업 전환이 매우 빠르다. 조색도 CMYK 오프셋 방식으로 간단히 이뤄진다.



한편, 물러마티니재팬은 지난 2012년 12월 7일 (주)코단샤 후지미노 디지털 인쇄제본 공장(사이타마현)에서 디지털 제본 시스템 '시그마 라인'의 세미나 및 오픈하우스를 170명의 고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기존의 대량인쇄 트렌드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소량 다품종 작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는 기계 공급자로서 새로운 도전과제이자 매우 좋은 트렌드라고 보고 있다.

